

# 동양사상으로 본 색 체계 해석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주역의 논리체계를 중심으로

## Study on Color-Order System Based on Oriental Philosoph

양미랑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Yang, Mi-Rang

Dept. of Interact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박영목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Park, Yeong-Mog

Dept. of Interact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 Key words: color-order system, Yin and Yang, Five Elements, the book of Changes(I Ching)

### 1. 서론

동양에서의 색채관이나 미의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색채의식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념체계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의 동양인들의 우주관을 형성한 하나의 사상체계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서양에서는 Munsell, NCS, HSV 등의 여러 가지 색 모델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고 구조화되어 사용 되었다. 교육을 목적으로 모델링 되어진 색의 모델이 있었으며,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모델, 디자인을 위해 설계된 모델 등이 그 예이다. 비교하는 두개의 종류가 조금 다를 것이라 생각되지만, 동양에서의 색 모델<sup>1)</sup> 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서양의 색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보다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색(色)을 말하고 있다.

### 2. 주역

#### 2-1. 주역의 기본 구조(삼재사상)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주역의 구조는 삼재(三才)라고 하는 구조이다. 이 삼재는 각각 3개의 효(爻)에 대해 天, 地, 人 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삼재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가 된 사상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이 삼재 사상은 흔히 원방각(天, 地, 人)으로 표시되며, 삼국유사에 전하는 단군신화에도 일맥상통한다.<sup>2)</sup> 여기서는 삼재의 天地人 으로 분류되는 각각의 주역 코드에 대해 RGB의 값과 CMY(K)의 값을 대입해 보았으며, 그로 인해 나타는 음양의 규칙성 변화를 보고자 했다.

#### 2-2. 주역의 수치화(RGB / CMYK 변환)

주역의 양의(兩儀)에 양의(陽儀: —)는 255(White)의 값을 음의(陰儀: --)는 0(Black)의 값을 각각 대입하여 빛과 어둠으로 보고, 사상(四象)은 그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각각의 괘상(=, =, =, =)에 Grayscale 수치값을 [표1]과 같이 가진다.

[표 1] 사상(四象)의 grayscale 수치화

四象	太陽 ☰	少陰 ☷	少陽 ☱	太陰 ☶
grayscale	00 % grayscale	25 % grayscale	75 % grayscale	100 % grayscale

1)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

2) 단군 신화를 보면 天(환웅)이 地(웅녀)와 결합하여 人(단군)을 낳았다는 삼재사상이 나타나 있다. <대산주역강의> p.71

빛의 색이라고 분류되는 RGB의 체계와 물감의 색이라고 말하는 CMYK의 체계를 주역의 8괘와 64괘에 각각 수치화하여 대입해 보았다. 그 원리는 [표 2]와 같다.

[표 2] 8괘와 64괘의 수치화 원리

8괘 (소성괘)	64괘 (대성괘)	RGB color mode
R 地 ☷	R 地 ☷	255 168 84 0
G 人 ☱	G 人 ☱	
B 天 ☰	B 天 ☰	
		CMY color mode
		0% 66% 33% 100%

R(地), G(人), B(天)의 경우 0-255까지의 수치를 각각 색상에 대입하였으며, CMY의 경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100%에서 0%의 값을 대입하였으며, 주역의 논리적 개념상 일치 했다.

### 3. 8괘의 모델

#### 3-2. 수치화 및 대입

[표 2]의 원리에 따라 8괘<sup>3)</sup>의 각각 3개의 효에 0과 255의 이진법 수치를 대입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팔괘의 RGB 수치화

팔괘	☰	☷	☱	☱	☰	☷	☱	☱
R	255	255	255	255	000	000	000	000
G	255	255	000	000	255	255	000	000
B	255	000	255	000	255	000	255	000
H	0	60	300	0	180	120	240	0
S	0	100	100	100	100	100	100	0
B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 3-3. 팔괘 color 모델 분석

8괘는 이전의 양의(의미)와 사상(상태)으로부터, 개념상 최초로 구체적, 형상이나 물질에 대입된다. 이러한 주역의 구조적 특성에 입각해 색체계 역시, 8괘에 이르러 색 구성 요소(RGB, CMY)를 모두 가지게 되며, 색상과 명암을 가지는 하나의 완성된 구체적 색으로 나타나 진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 색 수치는 [표 3]과 같다.

3) 괘명은 괘상의 순서로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뢰,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로 일컫는다. <대산주역강의> 상권 p84

## 4. 64괘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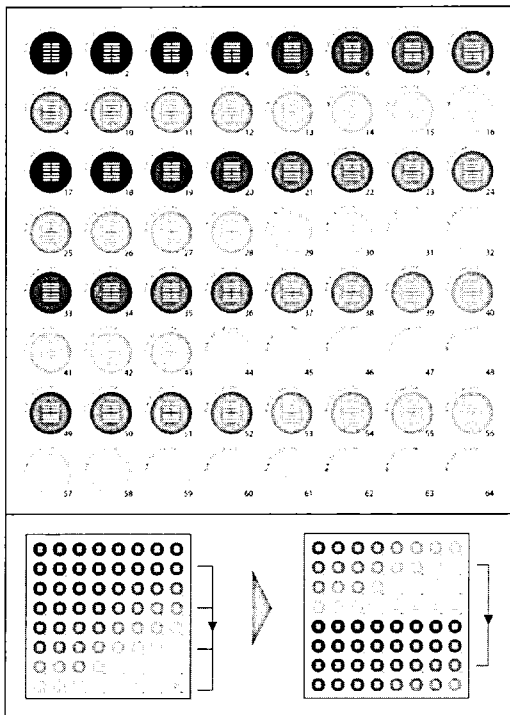
### 4-1. 64괘의 원리

64괘란 대성괘(大成卦)를 말하는 것으로 8괘의 소성괘가 위, 아래, 중간의 공간을 천지인으로 보아 간단히 묘사한 괘라고 한다면, 이 천지인을 음양으로 확대해서 상하사방의 육합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괘가 대성괘가 된다.<sup>4)</sup> 즉, 8괘의 기본이 되는 소성괘를 중첩하여 6획의 괘를 만든 것이 바로 대성괘이다.

### 4-2. 수치화 및 대입

64괘<sup>5)</sup> 역시 8괘와 같은 방법으로 RGB의 자리에 각각 2개의 호를 하나로 묶어서 수치를 대입하였다. 사상(四象)<sup>6)</sup>을 각 단계에 따라 등 분할하여 0%, 33%, 66%, 100% 즉, 0, 84, 168, 255의 수치를 각각의 RGB의 채널에 대입했을 경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64괘 color 모델



### 4-3. 64괘 color 모델 분석

8괘(3선형)으로부터 6선형의 64괘로 분화되는 것을 주역의 삼재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므로 [그림 1]과 같이, 사상을 그대로 수치를 대입하여, 색 모델을 얻어 낼 수 있다. [그림 1] 이 모델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미방진으로 불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64괘에서 마찬가지로 반대 위치의 괘 색(color)은 정확히 색상대비를 이룬다. 둘째, ㉔, ㉕, ㉖, ㉗, 의 괘는 RGB 수치가 모두 동일한 Grayscale 색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Grayscale 수치는 0%, 33%, 66%, 100%로 사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사상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처음 모델과 동일한 수리적 구조를

4) <대산주역강의> 상권 p129

5) 복희육십사괘도(伏羲六十四卦圖)의 배열에 따라 64개의 색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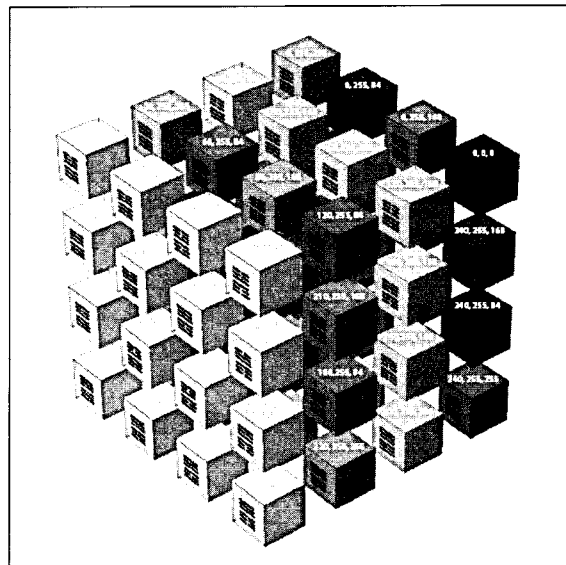
6) 8괘의 수치 대입 재료를 양의(兩義)로 썼다는 것에 착안하여 유추 해석했다

가지도록, 즉, 반대편의 괘와의 합이 (255, 255, 255)가 되도록 배열 경우,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두 모델을 추가 얻을 수 있으며, Grayscale 변환으로 그 흥미로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4. 64괘 color 입체 모델

주역의 상수학적 논리체계로 입체를 모델링 한 후, [그림 2]과 같이 색을 대입해 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앞서 생성한 평면모델의 성질을 그대로 계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64 color 모델은 서양의 비정방형 먼셀 색입체와 달리, 확대와 축소, 그리고, 변화의 무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방형 입체이다.

[그림 2] 64괘 color 입체 모델



## 5. 결론

음양오행론이 동양의 색체의식을 설명하는 의미를 제공해 준다면, 주역은 그 논리적, 객관적, 체계로 동양의 색체계를 재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주역의 수치화를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여 주역의 색 모델 도출하여 양의, 사상, 8괘와 64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였다. 양의로 부터, 빛과 어둠이 발생하고 그 정도가 나뉘어 사상에서는 명도가 발생하며, 8괘에서는 명도와 색상인 8가지 (White, Yellow, Magenta, Red, Cyan, Green, Blue, Black)의 색상이 분화된다. 이와 같이 명도와 색상에 이르러 64괘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색의 기본요소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낭월 박주현, 알기쉬운 음양오행, 동학사, 1997.
- 김수길 등역 『오행대의』 대유학당, 1998.
- 김석진 대산 주역강의, 한길, 1999.
- 李仁淑, 한국의 전통적 美意識과 五方色の 관계 연구, 2002.
- 이화여대 색채디자인 연구소 <http://colordesign.ewha.ac.kr/>
- 한국 색채 연구소 <http://www.kcri.or.kr>